

지역 소식



지역 계획 시리즈

4

지역 목표 1. 조상의 이름을 찾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성전 의식을 행한다

지역 목표의 의미: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모든 회원이 조상의 이름을 찾아 그 이름을 성전으로 가져가도록 힘써 노력한다”가 개인/가족에 대한 지역 목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성전과 가족 역사 간의 관계를 그저 조상의 이름을 찾아 죽은 자를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봉실”의 기록함

삿포로 성전의 일반 공개 기간에 우리는 여론 주도 인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목적과 성전에 반복적으로 가는 이유는 성전에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겨보고,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우리의 결심을 다잡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빵과 물을 취하는 성찬 의식과 비슷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설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전의 여러 다른 방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별의 왕국실과 달의 왕국실을 거쳐,

해의 왕국실로 안내했고, 해의 왕국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그곳에서 개인 기도를 드리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인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공개 기간 동안 저는 인봉실이 해의 왕국실보다 더 성스러울 수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목표에 잘 나타난 것처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하게 되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매우 중요하며, 또 그곳에서 이뤄지는 의식은 정말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족 및 개인” 웹사이트가 전하는 메시지

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족 및 개인” 페이지를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및 개인”은 “영원한 가족”, “인생의 어려움”, “자료”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은 다시 “가족에 관한 교리”, “가정과 가족”, “성전”, “가족 역사”로 나뉩니다. 여기서도 잘 나타나듯이, 가족과 성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교리”를 클릭하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 선언문을 가정의 밤이나 가족 평의회 시간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언문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가 무덤 너머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받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고, 또 가족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리의 핵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복음의 일부이며, 또한 우리가 다른 기독교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이 주제는 개인/가족에 대한 지역 목표에서 제일 위에 있으며, 선지자와 사도들께서 이것을 거듭 강조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비단 우리가 가족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가 무덤을 넘어서 영원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가족”을 클릭하면, “가정 생활의 행복”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페이지에 연결된 동영상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가지 않고서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이라는

“가족 및 개인”
웹사이트 참조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https://www.lds.org>

최고 상태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보다 제가 그분을 더 가까이 느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거룩한 집에 가고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배웁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혼에 평안을 얻습니다. 인간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¹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큰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울 때 종종 성전에 갑니다. 성전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떤 문제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즉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거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먼지가 가라앉고 안개와 아지랑이가 걷혀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²

따라서 우리 지역 회장단은 회원들이 성전에 가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족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께서 권고하는 일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자신의 조상을 찾는 데 몰두하고, 성전에서 성스러운 대리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준비한 다음, 성전에 가서 그분들을 대신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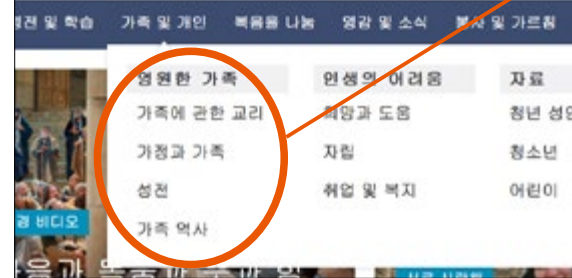
“청소년 여러분, 엘리야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조상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서 죽은 친족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또한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권고에 신앙으로 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조상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 구주에 대한 간증과 개종이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질 것입니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⁴

올해, 지역 회장단은 청소년과 젊은 형제 자매들이 가족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청소년이 와드에서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로 부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니파이전서는 이런 글로 시작됩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달리 말해, 몰몬경은 한 훌륭한 가족의 역사로 시작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즉 가족 역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가족 역사는 그것을 나눌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올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는 연로한 분들이 자신의 가족 역사를 자녀 및 손자 손녀들과 열심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목표를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가족” 책자와 “FamilySearch 가계도”, “FamilySearch 추억” 앱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가족 기록, 사진 및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장해서,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 앨범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앨범 사진을 손쉽게 컴퓨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차곡차곡 FamilySearch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올해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역사 활동을 하는 기쁨을 만끽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족 역사부 직원들이 기꺼이 도울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의 토대를 만드는 궁극적인 메시지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과 성전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고 새롭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우리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곳이며, 영원한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참된 기쁨을 느끼게 도와줍니다.

이 일은 단순히 조상의 이름을 찾아서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이름 뒤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은 멋지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에,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가족 역사 활동을 경험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더 큰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회원이 아닌데 “야마시타 씨의 가족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제 가족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회장단은



FAMILYSEARCH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FAMILYSEARCH”로 앱을 검색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 목표를 달성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가족 역사가 선교 사업으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궁극적인 메시지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자 토대입니다.

우리는 가족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가족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또 그런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가족 역사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
2.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말씀.
1과 2는 모두, “성전의 축복”: www.lds.org 첫 페이지 / 가족 및 개인 / 영원한 가족 / 성전 / 왜 우리는 성전을 짓습니까 / 성전의 축복에 있다.
3.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94쪽.
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26쪽.

2017년에도 계속되는 FamilySearch 캠페인

캠페인은 계속된다. 지역 회장단은 2016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캠페인을 열고,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기쁨을 찾도록 권유했다. 청소년과 가족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또한 최근 개종자는 3개월 이내에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 의식을 받도록 강조했다.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2017년에도 계속되며, 올해는 특히 청소년과 청년 등 자라나는 세대가 가족 역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가르치기” 순서에서, 가족 역사 사업의 경험을 가족 및 친구, 신회원들과 나누도록 하며, 페이스북 그룹에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한 뒤 이를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하고 있다. 공유된 사진과 글을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가족 역사를 사랑합니다”: www.facebook.com/groups/familyhistorykorea/) ■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된 사진들,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한 개인 및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전국 가족 역사 담당 역원 대상—가족 역사 훈련 모임

지난 1월 21일 토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의 감리로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가족 역사 훈련 모임'이 열렸다.

정태걸 장로, 구승훈 장로, 배동철 장로 등 지역 칠십인 세 명이 함께한 이 훈련 모임은 각 와드 및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와 관련된 부름, 즉 담당 고등평의원,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가족 역사 상담자, 가족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 등이 대상이었다.

이날의 연사로서 지역 칠십인 모두가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과 경전의 가르침,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나누었으며 가족 역사 센터의 홍하식 형제가 가족 역사 사업과 관련된 소식과 정보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스테이크의 최창덕 형제가 성도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곁에서 도왔던 경험과 사례를 나누며 참석자들을 훈련했다. 지난 해 부산 스테이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제출한 스테이크가 된 바 있다.

이 모임에는 전국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온 130여 명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족 역사 사업의 원리와 경험, 방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



광 주 스테이크 모임 소식

청소년 및 청년 대상—가족 역사 활동 모임

지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소년 및 독신 가족 역사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모임을 준비한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조인호 형제는 “올해 스테이크 목표가 모든 스테이크 회원이 가족 역사 사업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자라나는 세대가 경험하도록 돕고, 이후 가족 단위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전에 요청된 바에 따라, 5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LDS 계정 및 조상의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스테이크 센터에 모였다.

예배당에서 열린 환영사 및 개회를 시작으로, 이 모임은 곧 분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찾기’, ‘가져가기’, ‘추억’이라는 각 분반의 명칭에 따라, 조상의 정보를

찾고, FamilySearch에 조상의 정보를 입력하고 의식 카드를 출력하며, 가족과 조상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와 주요 사건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됐다.

올해 청년 독신 성인이 된 오태인 형제는 자신의 고조할아버지의 정보를 FamilySearch에 입력하며 이렇게 전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가신 고조할아버지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리 침례를 받을 때는 항상 조상들이 함께 침례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고 나면 뿌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가족 역사 입력 도우미 역할을 맡은 첨단 와드 청년 김서연 자매는 “사람들이 참여하려는 의지는 강한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모임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출력한 의식 카드로,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 및 청년들은 이 모임이 열린 그다음 주인 2월 11일 토요일, 서울 성전에 방문하여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았다. 이날 성전 의식 카드를 성전에 가지고 간 회원들의 수는 약 70여 명이었다. ■





단풍잎 가족

— 에피소드 1 —

“조상의 이름을 찾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성전 의식을 행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힘써 노력합니까?

2017년 4월호

L5

lds.or.kr에서도 지역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인 청년 독신 성인 및 독신 성인은 2017년 여름에 열리는 전 세계 한인 청년 대회에 초대받았다. 청년 대회 운영 및 준비 집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회에 관한 이 기사들은 대회 전까지 지역 소식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화위복의 경험

운영 위원 대표 강세희 자매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저에게 2016년 작년 한 해는 FSY와 연합 스테이크 청년 대회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던 해였습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느라 숨 가뻔던 작년 5월에 저에게 잊지 못할 한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답사를 마친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느끼던 어느 날, 장소 책임자분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는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의 일기에 좌절될 수 없다고 굳게 믿으며, 영에 이끌린 채 늦식판을 찾으려 갔던 니파이처럼 신앙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소 섭외를 위해 금식 후 뜬눈으로 밤을 새며 답사할 장소 리스트를 만들었고, 운영팀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중 한 장소를 결정하여 다음 날 바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곳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원래 가려던 장소보다도 청년 대회를 운영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 생각지 못한 많은 도움으로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도구로서 먼저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도우실 것이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 세계 한인 청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땅에서든, 해외에서든 여러분이 먼저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행사하신다면 저와 같이 생각하지 못한 전화위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께서는

저희 개개인을 알고 계시며, 이 대회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저희에게 빚지지 않으실 분이시란 걸 간증드립니다. ■

하나님의 방법

운영 위원 대표 정재진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정 형제, 잘 지내지?”라며 걸려온 정한 형제님(청년 대회 준비 집행 부위원장)의 전화를 받으면서, ‘아 이것은 익숙한 전화 패턴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정 형제님은 “내년에 청년 대회가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전 세계 한인 청년 대회의 형제 청년 대표로 봉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시 구직을 하던 시기라 직장 문제와 휴가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을 때, 형제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그렇니? 이번에 청년 대회 봉사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신을 통해 느끼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는 잘 몰랐지만,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기사에 다 실을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정말 오묘한 방법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마침 이 직장은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제가 딱 원하는 요건들을 갖춘 직장이었습니다. 정한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신께서 주신 느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나누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기회를 찾는 것도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2017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

8월 11~15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저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것에 먼저 기준을 맞추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소망을 위한 방편들을 찾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번 청년 대회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며 저는 그 주제의 증인으로서 전 세계의 한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모든 한인 청년이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방편을 찾아보도록 권유합니다.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모든 청년이 이 대회의 주제를 배우고 적용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전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로 얻은 것

청년 독신 성인 권석현 형제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저는 작년 동, 동대문, 광주, 순천 연합 청년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참석했던 두 번의 청년 대회에서 그리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청년 대회는 그저 지도자분들의 권고에 따라 약간의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청년 대회는 조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는 조장이다 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 매일 경전도 읽고 하루 열기, 하루 닫기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공부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조장으로 이 전에 참석했던 두 번의 청년 대회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경전을 읽고 느낀 것들을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 나눴던 경전 구절, 간증, 그리고 연사님의 말씀을 통해, 청년 대회 주제 성구였던 힐라맨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구속주의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더욱더 큰 간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간증을 나눴을 때 제 간증이 더 커지고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 덕분에 경전을 읽고 간증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경전을 읽고, 독신 활동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저활동이었다가 6년 전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첫 청년 대회에 참석할 때 와드의 한 형제님께서 청년 대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참되고 위대한지 알 수 있고, 좋은 친구들을 통해 구속주의 반석 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김현승 형제



나와 아내가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다. 청년 시절
대부분의 청년이
그렇듯, ‘영원한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성전에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확신을 얻어 인봉될 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서,
‘영원한 결혼’이 종착지가 아니며, 이제
겨우 새로운 성약의 문을 열고 한 발짝
디뎠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한 지 4개월 즈음에, 나는 검진을
통해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하고 가벼운 암이라고
했으나, 신혼 시기의 나와 아내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듯 놀랍고도 무서운
소식이었다. 수술 이후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아주 힘들었지만,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분의
사랑의 신호가 되었다. 결국, 복음의
원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결혼의 시작에서 나름의 큰
경험을 하고 나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시련을 겪고 지속적으로 슬기롭게
인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오랜 기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심각한
고민이었다.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결국 우리는 최신 의학의
힘을 빌려 마침내 결혼한 지 5년 반
만에 시험관 아기에 성공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몸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도드렸다.

그러나 임신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의사는 아이의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번의 검사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검사 결과는 불확실했다.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내 직장
업무로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가야 했다.
모임 준비로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아이의 뇌에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보이고, 특별한 방법이 없기에
그냥 이렇게 태어날 것 같대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아내가 울먹이고
있었기에 나는, “괜찮아요, 여보. 아직
우리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기도의 힘은 유효하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도록 열심히 간구합시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잘
키우기로 했잖아요.”라고 위로했다. 그런
후 머릿속에 떠오른 구절을 인용하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욥기 1:21)잖아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사실 내가 말하고도 속으로는 이
구절이 너무나 야속하게 다가왔다.

계속해서 가져왔던 희망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마치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지금 나타난 것처럼 슬펐다. 마트에서
카트를 한구석에 세워두고 주위를
의식할 새도 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구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단 마음이 들었다. 영속적인
기쁨과 행복에 대해 늘 이야기하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들을 가슴으로 옮기지 못한 채,
새로운 시련을 만나니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내가 바보 같았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행복들을 떠올려 보았다.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던 그 날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감사 기도를 떠올렸다.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다.

혹시나 문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에
그 아이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이전과 같은 종류의
슬픔은 사라지고 감사와 새로운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이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지”와
같은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었고,
주님께서 지금도 그에 대한 답을 우리
부부에게 주시고 계신다.

지난해 7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들
주원이가 태어났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한

여러 검사와 병원 신세를 거처오면서도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해부학적인 문제들은 여전하지만, 지금처럼 주님의 손길이 계속되기를 구하며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운다. 설령 우리의 기도에도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도 처음 결심처럼 아내와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 기쁘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생활하고 있다.

아직 부족함이 가득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매일의 욕심과 주님께 드리는 요구사항은 더욱 커지고, 감사와 기쁨 대신 불만과 슬픔이 자리했으리라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고통, 장애 등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연하게 이겨내고 웃음 짓는 충실한 분들의 모범에서 배우며 더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

또한 나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것에 더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인해라도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배운다. 나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은 현재를 포함하여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마다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작은 구주'들의 도움을 늘 받아 왔다.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복음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사랑을 전해 준다.

나는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실천하는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모범을 정말 닮고 싶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항상 미소 짓고 싶다. 복음을 더욱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원한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1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넬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통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참조)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우리 곁에서 미소 지어주시고, 때로는 안쓰러워하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두 함께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사랑하는 가족 또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나아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속적인 기쁨 또한 주실 것을 알고 있다. ■

서울 스테이크 모임 소식

개종자와 함께하는 음악 노년의 모임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저녁, 서울 스테이크 박성식 회장의 감리로 '개종자와 함께하는 음악 노년의 모임'이 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 열렸다.

녹번 와드, 신촌 와드, 일산 와드, 금촌 와드 중창단의 노래가 발표되며 발표 중간 중간 신회원들이 간증했다. 특히 금촌 와드는 갓 독신이 된 청년들과 청소년이 합창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 개종자 세 명의 진실한 간증과, 각 와드 중창단의 노래 발표가 어우러지며 녹번 와드 예배당에는 주님의 영이 가득했다. 훌륭히 준비된 각 순서가

연결되어 하나의 큰 공연이 되었다.

고등평의원인 일산 와드 하태완 형제를 중심으로, 스테이크 회장단과 선교 담당 고등평의원들이 함께 이 모임을 준비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첫째, 최근 개종자, 신회원을 강화하는 것, 둘째, 각 와드의 중창단이 활동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셋째는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회원 선교 사업에 필요한 주님의 영을 지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마음을 다해 부르는 성도들의 노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전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신당 와드의 이경주 자매는, "이 모임은 한국에 스테이크가 조직되기 전, 신회원이었던 저의 청소년 시절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당시 막 개종했을 때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고 틈만 나면 여러 모임에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오늘 모임을 통해 자신이



이모임에 참석한 신당 와드의 이경주 자매는, "이 모임은 한국에 스테이크가 조직되기 전, 신회원이었던 저의 청소년 시절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당시 막 개종했을 때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고 틈만 나면 여러 모임에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오늘 모임을 통해 자신이"

개종했던 시절을 떠올려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와 다른 회원들 모두가 신앙을 더 굳건히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날 간증을 나눈 신회원 중 금촌 와드 유지현 자매는, “회원들이 어두운 밤하늘을 별빛으로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했다. 같은 와드 또래 친구인 이명원 형제는 “선교사님들과 저와 함께 토론하면서 제가 했던 말을 유지현 자매가 기억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회원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또 느꼈고 더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전했다. 또한 막 청년이 된 금촌 와드

이인에 자매는 합창하고 개종자들의 간증과 모범에서 강한 영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분들이 복음을 배우고 신앙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느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저도 더 노력해서 신앙을 키워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2017 사랑의 편지

제 세미나리 교사, 강명옥 자매님께.

“사랑의 편지” 시리즈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글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다. 사랑의 편지는 2017년 한 해 동안 연재된다. 이번 4월호에 실리는 두 가지 편지는 세미나리 교사와 반원이었던 스승과 제자의 글이다. 청년 독신 김현우 형제는 청주 스테이크에서 성장했으며, 대학 진학 이후 (선교 사업 시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 남 스테이크 김현우 형제의 편지



제 세미나리
교사, 강명옥
자매님께.
자매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현우입니다. 편지를 공개적으로 쓰려니 좀 부끄럽네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편을 든 것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세미나리 교사로 훌륭하게 봉사해 주셔서, 수업 시간 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돌봐주시며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침례받은 누나의 영향으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부터 자취하며 혼자 교회에 다녔어요. 당시 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던 시점에 자매님께서 저의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셨지요.

토요일마다 상당 와드에서 모여서 세미나리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질문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교리적으로 궁금한 것이 한창 많은 시기였고, 궁금해 하던 것 중에는 쉽지

않은 주제들도 많았어요. 세미나리 시간에 쉽고 어려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마다 자매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 복음 지식과 신앙의 기초를 닦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자매님께서 제게 세미나리 교사 이상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는 드물게 저는 가족을 떠나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시 혼자 교회에 가고 학교에 다니던 일이 어린 제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를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족은 친척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가깝게 보듬어 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교회가 끝나면 으레 자매님 댁 차를 얻어 타던 일, 일요일 오후에 자매님 댁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자매님 댁에서 아귀찜을 처음 먹어보던 날, 미더덕을 먹으며 이런 걸 왜 먹는지 의아해하는 제게 ‘향으로 먹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재미있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수시로 집에 초대하고 먹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제겐 즐겁고 따스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잊지 않고 미역국을 끓여주셨던 일은 언제까지고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주 고마워하고 계세요. 이제 와서 떠올려 보니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네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제게, 마음 편히 기댈 곳이 있었다는 건 큰 위로였어요.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게 됩니다. 이렇게 연민과 봉사라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입니다.”(“사랑, 그 다음은?”, 리아호나, 2016년 9월호, 4쪽)

자매님의 신앙과 봉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렇게 청년 독신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매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은 제게 크고
 작은 꿈과 목표도 심어주었어요. 힘들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도
 자매님처럼 주위 이웃을 초대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것이 제 신앙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는 자매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

청주 스테이크 강명옥 자매의 편지

현우야 안녕. 편지 정말 고맙다.

처음 현우를 만났을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지.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 이제 믿음직한 청년 독신으로 훌륭하고 멋지게 성장했구나. 청소년 시절 침례받은 개종자로서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선교 사업을 마치고, 이제 직장과 교회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런 점들이 참 고맙구나.

예전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매주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더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때는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이
영망이었고 반찬도 별로 없었지. 그래도
너한테 좋은 기억만 남은 것 같으니
다행인 것 같다.

함께 라면 끓여 먹던 것과 네 생일에
미역국에 잡채를 만들어 먹었던 일을
잊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현우 너는
우리에게 그저 가족 같았기 때문이지.
교회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항상 기뻐하고 예뻐어.

네가 졸업하던 2006년에, 청주 스테이크 세미나리 간증집 발간을 시작했던 거 기억하니? 세미나리

반원들의 간증이 담긴 이 책은 그동안 6~7회 정도 출간되었었다. 처음 만들던 때, 컴퓨터가 능숙하지 못한 나를 네가 도와줬잖니. 소위 '독수리 타법'으로 천천히 타자를 치던 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너는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를 도와줬지.

네 편지를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현우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함께
만들었던 간증집을 꺼내봤어. 네가
쓴 글을 읽어보니, 후배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미나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더구나. 그리고 “모든 청소년이
세미나리를 들으며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바란다.”라는 멋진 소망도 남겨두었지.

그걸 읽다 보니 세미나리 시간에 함께 토론했던 것이 생각났어. 신약전서의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에베소서 2:4~10)라는 구절을 읽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함께 간증했었지. 참 멋진 시간이었어.

그때로부터 10년도 더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 올해도 세미나리 간증집을 편집했고, 또 이번 졸업식에서도 우리 세미나리 박원들이 역적으로 많이 발전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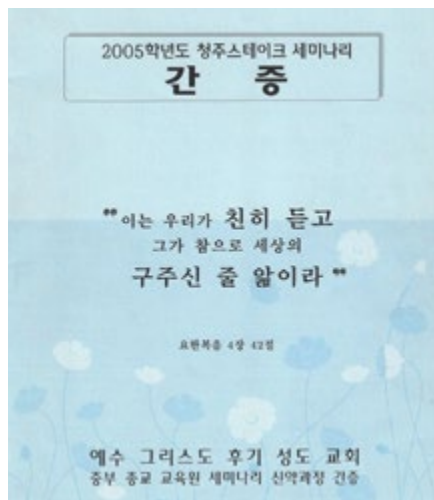
마음속으로 소망했어. 네 편지를 받고 나니 세미나리 교사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세미나리 반원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구나. 구주와 같이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소망을 다잡게 되었어.

별로 변한 것 없는 일상 같지만,
우리가 함께 토론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

지금 현우는 어떠니? 네가 주일학교 공과에서 인생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네.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도 이야기했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자녀도 잘 키우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했었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라는
구절처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건,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될 거야.

현우의 멋진
삶을 항상
응원할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강명옥
자매가. ■



간		증	
2005학년도 인학과정 세미나리 간증			
목 차			
<p>일주일 동안 공부 교육환경 속의</p> <p>간증문을 기다리며</p> <p>일주일 과제 (1차) (1차 매달리)</p>			
<p>총점 및 점수</p> <p>교과수 성적 (1차) (1차) (1차) (1차) (1차)</p> <p>총점수 과제 (1차) (1차)</p>			
영양제:		훈련제:	
영양제 과제 (1차)	9	훈련제 과제 (1차)	25
영양제 과제	30	영양제 과제	27
영양제 과제	12	영양제 과제	28
영양제 과제	12	영양제 과제	31
영양제 과제	12	영양제 과제	32
영양제 과제	12	영양제 과제	34
영양제 과제	12	영양제 과제	35
예제:		훈련제:	
예제 과제 (1차)	16	예제 과제 (1차)	36
예제 과제	17	예제 과제	37
예제 과제	18	예제 과제	38
예제 과제 (1차)	20	예제 과제	39
예제 과제	22	예제 과제	41
예제 과제 (1차)	23	예제 과제	42
예제 과제	24	예제 과제	43
훈련제:		훈련제:	
훈련제 과제 (1차)	25	훈련제 과제 (1차)	38
훈련제 과제	26	훈련제 과제	39
훈련제 과제	27	훈련제 과제	41
훈련제 과제	28	훈련제 과제	42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4명 / 장로 8명



김요셉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김태훈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박다진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박예랑 자매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



박인수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설진영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송우성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부산 선교부



안광웅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선교부



이인영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부산 선교부



정재훈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대전 선교부



최하림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영국 런던 남
선교부



황수경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 와드
부산 선교부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감독: 조광욱 형제(전임: 박원규 형제)